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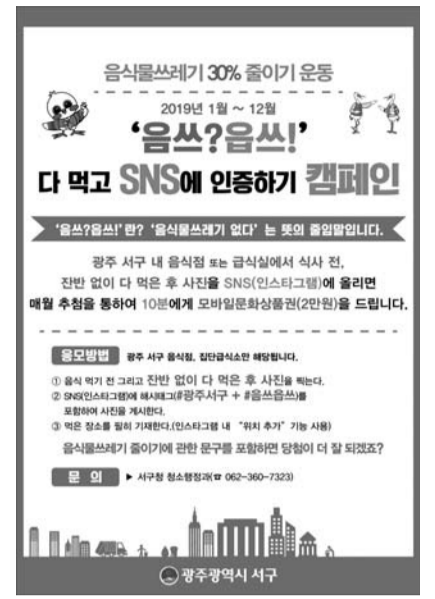
스마트세상 따라잡기...시민 무료 정보화교육

2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고령·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 5개 과정...선착순 50명 모집

광주시가 고령층 및 주부 등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2019년 상반기 시민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수강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매일 셋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50명을 받는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지난 2004년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6개 과정이 운영됐으며, 7269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 세상 따라잡기 with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 ▲웹 포토샵(Pixlr)으로 사진 디자인하기 ▲파워디렉터로 UCC 영상 만들기 ▲유튜브(youtube)로 1인 미디어 도전하기 등이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광주시민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5개 과정으로 실시된다. 2월 7일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스마트 세상 따라잡기 with 스마트폰 활용'에서는 구글맵, 카타오맵, 에버노트, 캡스캐너 등 스마트폰 기술을, 3월 4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기'에서는 사진·영상 촬영과 편집방법, 스마트폰에서 슬라이드 영상 제작하기, 스마트폰 사진·영상 보관과 백업방법 등을 교육한다. 4월 1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웹 포토샵(Pixlr)으로 사진 디자인하기'에서는 픽슬러(Pixlr)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진을 편집하거나 보정하고, 직접 그리거나 여러 장을 합성해 소셜미디어 또는 생활문서 디자인에 활용하는 과정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파워디렉터로 UCC 영상 만들기'에서는 파워디렉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편집해 보고 용도에 맞는 영상 제작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인 6월 3일부터 24일까지는 '유튜브(youtube)로 1인 미디어 도전하기'를 통해 1인 미디어가 되기 위한 영상 촬영 및 편집, 채널 개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활용, 홍보 방법 등을 가르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등에 대한 전세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생이 늘고 있다"며 "교육수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보화교육의 생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구,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캠페인

광주시 서구가 "음쓰? 음쓰! 다 먹고 SNS에 인증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 이름 '음쓰? 음쓰!'란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는 뜻의 줄임말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에 맞춰 지난해 7월 기획된 캠페인으로, 기존의 홍보방식과는 차별화된 주민주도형 참여방식이다. 참여방법은 서구 지역 음식점 또는 집 단급식소(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구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 사진과 잔반 없이 다 먹은 후 사진을 각각 촬영해 먹은 장소와 해쉬태그(#음쓰음쓰 #광주서구)를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된다. 서구는 매일 10개 우수 계사들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자동차세 1월 미리 납부 10% 할인 받으세요 광주시 31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등록차량의 절반이 넘는 39만대가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며, 115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ARS(1899-3888) 또는 인터넷 위탁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탁스(wetax.go.kr), 지로(giro.or.kr), 모바일지방세납부앱(스마트위탁스), ARS(1899-3888)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도시공사·녹색어머니회 사회공헌 협약 광주시도시공사는 15일 도시공사와 광주녹색어머니연합회간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공사는 녹색어머니회와는 배식봉사, 세탁봉사, 김장김치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공사는 광주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캠페인용 방한장갑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구, '보행 불편' 예술의 거리 조각품 이설·재배치

6점은 산수1구역 소공원 로공원에 있던 조각품 20점 중 18점이 예술의 거리로 이전됐다. 이후 작품 간격이 1m 내외이고 뒷면은 감상할 수 없는 확일적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차량통행 불편, 시민 보행환경 불편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는 2017년 2월부터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설계획을 검토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이설계획을 수립했다. 15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술의거리 조각품 18점 중 6점은 산수1구역 소공원 내에, 4점은 동구문화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동구마루 등 공공시설에 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머지 8점은 동부경찰서 앞 등 예술의거리 일원에 재배치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예술의거리 조각품 이설·재배치는 작품의 미, 작가의도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잘 어우러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공공미술작품이 삭막한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 간담회

광주시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5일 청년센터 아카이브를 찾아 지역의 청년단체 관계자, 청년활동가, 대학생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북구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청년 자립 지원, 청년 행정 참여, 취업·창업 지원, 청년 활동 기반조성 등 4대 분야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들과 청년강사를 매칭해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서로서로 학교'와 근로·사업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예산참여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등을 구성·운영해 예산이나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의견 발굴 등 청년들의 행정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구 일자리위원회·청년창업지원협의회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선 7기 공약인 청년창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의 틀도 마련했다. 청년 활동가들은 "북구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청년문화센터 조성 시에도 청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남구, 농촌지역 마을 공동시설 일제점검

광주 남구는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농촌지역 마을 공동시설 일제 점검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여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정자 19곳과 마을회관 22곳이다.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있는 정자 및 마을회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노후로 인한 파손 여부와 마을회관의 내부 및 벽면 등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정자 및 마을회관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짓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 시설로 자주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에서 사고 좋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가 - 32억(평당 750만원). 일시불 조정가 문의 - 010.3605.5000

